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교회 2015년 재정을 결산하고 2016년 예산을 세우며, 연회 대표를 선출하는 구역회가 오늘 오후 1:30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달 선교회 모임은 31일에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22-24일 흠뻑돌셈터(강화)에서 열립니다.

2016년도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환경부, 문화부, 평화부, 예배부도 새로운 부원을 모집합니다. 봉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교회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실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세요.  
 차를 가지고 오실 때는 선린인터넷고등학교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예배에 늦지 않게 오시고, 앞을 때는 앞자리부터 채워 앉아 주세요.  
 회중은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송영 이후에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설거지 봉사는 해당 연령대면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1부	느 8:1-6 / 시 19	2부	사 45:4-8
예배	고전 12:12-31a / 눅 4:14-21	예배	

오늘 식당 봉사 : 이소애 오미숙 이영란 이소혜 박유경 변재민 강세기 김성우  
 다음 주 식당봉사 : 정영선 홍춘숙 김애순 김경혜 안현숙 배삼순 김정훈 곽상준  
 오늘설거지봉사 : 3남선교회 (46-50세)  
 다음주설거지봉사 : 4남선교회 (41-45세)  
 커피 판매 봉사 : 4여선교회  
 떡 대 접 : 정현숙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주님의  
 모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첫 줄

첫 줄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써진다면  
 첫눈처럼 기쁠 것이다.  
 미래의 열광을 상상 임신한  
 둥근 침묵으로부터  
 첫 줄은 태어나리라.  
 연서의 첫줄과  
 선언문의 첫 줄.  
 어떤 불로도 녹일 수 없는  
 얼음의 첫 줄.  
 그것이 써진다면  
 첫아이처럼 기쁠 것이다.  
 그것이 써진다면  
 죽음의 반만 고심하리라.  
 나머지 반으로는  
 어떤 얼음으로도 식힐 수 없는  
 불의 화환을 엮으리라.

- 심보선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장로 : 한완식 윤석철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찬양	449. 예수 따라가며	다 함께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의 일 함께 하자’라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사십시오. 그늘진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빛을 전하며 사십시오.	
다 함께:	아멘. 세상의 어둠을 한탄만 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답하며 살겠습니다. 길은 어둠에 짓눌린 이들에게 주님의 빛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담임목사
<b>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b>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구역회	낮 집회 / 설교: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신진식 전도사	공동기도	배동준 선생
	2부 김기석 목사	하현철 장로	한성건 집사

1월	영접위원	한완식 임주빈 김정주 최현옥 고숙이 김정미 최은미
	헌금위원	박홍재 정영선

믿음으로 읽는 글

## 자유 의 도상에 있는 정거장

### 훈련

그대가 자유를 찾아서 떠나려고 하거든  
욕망과 그대의 지체가 그대를 이리저리 끌고다니지 않도록  
먼저 그대의 감각과 영혼을 훈련하는 법을 배워라.  
정신과 육체를 정결케 하고,  
그대에게 정해진 목표를 찾아 거기에 복종하고 또 순종하라.  
자유 의 비밀을 경험한 사람은 없다. 그것은 오직 훈련에 의할 뿐이다.

### 행동

마음대로 행하지 말고, 정의를 단연 행하고,  
가능성 속에서 동요하지 말고, 현실적인 것을 대담하게 붙잡으라.  
자유는 생각의 도피 속이 아니라, 오직 행동 안에만 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그대의 믿음만을 의지하여,  
두려운 주저에서 뛰쳐나와 사건의 폭풍 속으로 나서라.  
그리하면 자유는 그대의 혼을 환호하며 맞이할 것이다.

### 고난

놀라운 변화, 힘차고 살아 있는 손이 그대에게 연결되어 있다.  
무력함과 고독 속에서 그대는 그대 행동의 종말을 보고 있다.  
그러나 그대는 안심하고, 믿으며, 더 강한 손 안에서 위로받으며  
조용히 만족한다.  
오직 한 순간 동안 그대는 환희에 넘쳐 자유를 맛보았지만,  
그대는 자유를 하나님에게 맡겼다. 그분이 자유를 영광스럽게  
완성하시도록.

### 죽음

자, 이제 오너라, 영원한 자유에 의 도상에 있는  
최고의 축제인 죽음이어.  
우리의 덧없는 육신과 현혹된 우리 영혼의  
무거운 사슬과 장벽을 부수고,  
이 세상에서는 보기를 꺼리는 것을 마침내 보기 위하여.  
자유여,  
우리는 오랫동안 훈련과 행동과 고난 속에서 그대를 찾았다.  
그런데 이제 죽으면서 우리는 그대 자신을  
하나님의 얼굴 속에서 본다.

- 디트리히 본회퍼가 옥중에서 죽음을 앞두고 쓴 시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자유는 오직 훈련과 행동을 통하여 쟁취됩니다. 훈련 없는 자유는 욕망의 노예로 우리를 전락시키고, 행동 없는 자유는 소시민적 개인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참된 자유를 찾는 사람은 정신과 육체를 정결케 하고, 감각과 영혼을 훈련해야 합니다. 자유는 하고 싶은 일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데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고난을 받고, 무력함과 고독 속에서 지치게 되고, 감옥에 갇혀 자유를 잃게 됩니다. 이제 자유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세상은 죽음을 보기를 꺼립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자유의 끝이 아닙니다. 본회퍼는 죽음에서 참된 자유의 시작을 봅니다. 하나님의 얼굴 속에서 참된 자유를 찾은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치 희미한 청동 거울을 보듯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은 자유의 도상에 있는 마지막 정거장입니다.

- 채수일, "디트리히 본회퍼의 깊이와 넓이"(기독교사상2004년8월호)중